



살인 혐의 벗기 위한 또 다른 살인... '자백의 대가'

전도연·김고은 주연

넷플릭스 새 시리즈

5일 전세계 동시공개

“끝까지 반전 일어나”

나름 행복했던 중학교 미술 교사 안윤수(전도연 분)의 삶은 남편의 죽음으로 크게 흔들린다. 처음에는 피살된 남편을 처음 발견한 목격자 일 뿐이었지만, 경찰과 검찰은 지나치게 태연하게 구는 윤수를 의심하기 시작한다

윤수는 결백을 주장하지만, 백동훈(박해수) 검사는 사건을 재구성해 그를 기소하고 결국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다. 사랑하는 어린 딸 역시 보육원에 맡겨진다. 절망에 빠져 머리를 찢던 그때 벽 너머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린다.

내가 당신의 남편을 죽였다고 자백해줄 테니 대신 교도소 밖에 나가서 사람을 하나 죽여 달라고.

제안을 한 사람은 사이코패스 또는 마녀라고 불리는 여자 모은(김고은)이다. 반(半)삭발에 가깝게 짧은 머리, 도무지 속내를 짐작할 수 없는 무표정한 얼굴, 온몸에 가득한 상처, 지문이 사라진 손. 한 재력이 부부를 독극물로 살해하고는 20년



'자백의 대가' 한 장면.

넷플릭스 제공

넘게 그 현장에 머물다가 경찰에 순순히 잡힌 수수께끼 같은 인물이다.

'자백의 대가'는 윤수와 모은의 비밀스러운 거래에서 시작한다. 보는 이들은 왜 모은이 이런 제안을 했는지, 윤수가 정말 약속을 지킬지 알지 못한 채 12부작의 긴 스릴러 시리즈를 따라가게 된다. 살인 혐의를 벗기 위한 대가로 또 다른 살인을 저질러야 한다는 아이러니에 갇힌 윤수의 상황도 흥미롭다.

여기에 더해 살인사건의 진범에 관한 의문점도 심어놨다. 이야기 곳곳에 윤수가 누명을 쓴 게 맞는지

의심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비친다.

처음에 윤수는 개미 한 마리도 못 죽이는 성격에 천진난만해 보이는 태도로 결백을 주장한다.

백 검사가 윤수의 책상에서 발견한 염산 구매 영수증, 어릴 적 보육원에서 친구의 다리를 부러뜨렸다는 징계 기록, 홍기로 쓰인 와인병의 지문 등을 찾아올 때마다 그의 태연자약한 얼굴이 달리 보인다.

윤수의 증언과 백 검사의 추론이 서로 맞서는 상황에서 남편이 죽던 날에 대한 둘의 주장을 각각 재현하고, 이를 교차 편집했다.

모은도 이 살인사건과 동떨어진 인물은 아니다. 윤수는 그날 밤 의문의 검은 후드티와 마스크를 쓴 여자를 봤다고 증언했고, 모은은 심심치 않게 마스크나 품이 큰 후드티를 입고 등장해 실제 살인범일 수 있다는 의심을 더한다.

이정호 PD는 지난 3일 제작발표회에서 “과연 누가 범인인지 꼭 생각하면서 보셨으면 좋겠다”며 “끝까지 반전이 일어난다”고 귀띔했다.

총 12부작으로 5일 전세계 동시 공개된다. 언론에는 1~3화가 선공개됐다.

연합뉴스

아이유·변우석에 공효진·유연석까지…

MBC, '21세기 대군부인' 등 내년 드라마 라인업 공개

MBC가 로맨스부터 액션, 스릴러까지 다채롭게 담긴 2026년 드라마 라인업을 공개했다.

MBC는 배우 아이유·변우석 주연의 드라마 '21세기 대군부인'을 내년 상반기에 공개한다고 4일 밝혔다. '21세기 대군부인'은 21세기 입헌군주제 대한민국을 배경으로, 모든 걸 가진 재벌이지만 신분이 평민이라 짜증스러운 여자 성희주(아이유 분)와 왕의 아들이지만 아무것도 가질 수 없어 슬픈 남자 이안대군(변우석)의 신분 타파 로맨스를 그린 드라마다.

MBC 드라마 극본공모 당선작이자 내년 최고 기대작으로 꼽히는 이 작품은 '환혼', '김비서가 왜 그럴까'의 박준화 감독이 연출한다.

MBC는 또 배우 공효진·정준원이 출연하는 드라마 '유부녀 킬러'를 내년 하반기에 공개할 예정이다.

'유부녀 킬러'는 세상에서 가장 살벌한 직업을 가진 워킹맘이 3년 육아휴직을 끝내고 현업에 복귀한 뒤, 가족과 일 사이에서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지키고자 고군분투하는 과정을 담은 생활밀착형 액션 드라마다.

극 중 공효진은 네 살 딸아이를 둔 5년 차 주부이자 범죄자를 처단하는 킬러인 유보나 역을 맡았다. 정준원은 베일에 싸인 킬러의 비밀을 밝히고 싶어 하는 신문사 기자이

자 보나의 남편 권태성을 연기한다.

동명 인기 웹툰을 원작으로 한 이 드라마는 '선재 업고 튀어'의 윤종호 감독이 연출을 맡았다. 드라마 '라이어'는 하나의 기억을 두고 정반대의 주장을 펼치는 남녀가 진실을 향해 치열하게 충돌하는 심리 스릴러다.

주연을 맡은 유연석과 서현진이 SBS '낭만닥터 김사부'에 이어 재회한 이 작품은 '은중과 상연'을 만든 조영민 감독이 연출한다.

공명·한효주 주연의 '너의 그라운드'는 단 한 번의 좌절로 선수 생활이 멈춰버린 야구선수 강해환(공명)이 변호사 출신 에이전트 서희승(한효주)을 만나 그라운드로 돌아가는 여정을 그린 청춘 로맨스다.

스포츠 선수와 에이전트의 이야기로 영화 '레리 맥과이어'를 떠올리게 하는 이 작품은 '유미의 세포들' 시리즈의 이상엽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이외에도 MBC는 다음 달 2일 첫 방송하는 지성·박희순 주연의 '판사 이한영'을 비롯해 채종협·이성경 주연의 '찬란한 너의 계절에', 신하균·오정세·허성태 주연의 '오십프로' 등을 선보인다.

MBC 드라마 관계자는 “명품 배우진, 연출진과 함께 최고의 작품들로 한 해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제니·채영, 美 롤링스톤 '최고의 앨범 100선'

제니 '루비' 29위·채영 'LIL FANTASY vol.1' 86위

미국 음악 전문지 롤링스톤(Rolling Stone)이 발표한 '2025년 최고의 앨범 100선'(The 100 Best Albums of 2025)에 블랙핑크 제니와 트와이스 채영의 솔로 앨범이 포함됐다.

3일(현지시간) 롤링스톤이 공개한 목록에 따르면 제니의 첫 솔로 정규앨범 '루비'(Ruby)는 K팝 가수 가운데 가장 높은 순위인 29위에 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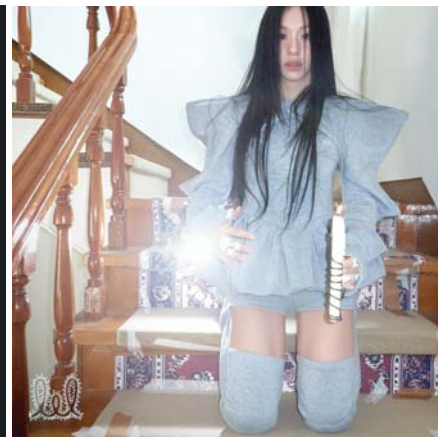
롤링스톤은 “'루비'는 2000년

대와 2010년대 알앤비(R&B)풍 팝의 아이디어에 깊이 의존하면 서도 때로는 흥미로운 방식으로 이를 현대화했다”며 “제니는 달콤한 팝 알앤비의 중심을 장악하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줬다. 아울러 리애나가 2016년 '안티'(Anti)에서 보여준 흐릿한 자기 성찰의 2세대 후손처럼 느껴지게 했다”고 평했다.

'루비'는 제니가 직접 프로듀싱을 맡은 앨범으로, 타이틀곡 '라이



제니 솔로 정규앨범 '루비'.



채영 솔로 정규앨범 '릴 판타지 볼륨1'.

크 제니'(like JENNIE) 등 다양한 장르의 15곡이 수록됐다.

채영의 첫 솔로 정규앨범 '릴 판타지 볼륨1'(LIL FANTASY vol.1)은 이 목록 86위를 차지했다.

롤링스톤은 “채영의 솔로 데뷔 앨범에는 오랜 친구를 잃고, 용서하고, 자신의 독특한 자아를 받아들이는 내용의 가사가 담겼다”고 소개했다.

연합뉴스

한국·몽골팀 우정 여행기 '웰컴 투 몽골'

'피지컬: 아시아' 스핀오프

24일 넷플릭스에서 공개

넷플릭스 오리지널 예능 '피지컬: 아시아'가 스핀오프(파생작)로 돌아온다.

제작사 테오(TEO)는 오는 24일 '피지컬: 아시아'의 스핀오프 예능인 '피지컬: 웰컴 투 몽골'의 1, 2화를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한다고 3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피지컬: 아시아' 결승전에서 뜨겁게 맞붙었던 한국

팀과 몽골 팀이 몽골에서 다시 만나 우정 여행을 떠나는 여행 예능으로, 김태호 PD가 설립한 테오에서 제작했다.

앞서 한국 팀을 몽골에 초대하겠다고 말한 몽골 팀 주장 어르험바야르와, 우승 후 몽골에 놀러가겠다고 밝힌 한국 팀 주장 김동현이 서로의 약속을 지키는 과정이 담겼다.

한국 팀의 김동현, 아모피와 몽골 팀의 어르험바야르, 오치르 등이 여행에 참여할 예정이다. 총 4회 분량으로 제작됐으며, 24일 1~2회, 31일엔 3~4회가 공개된다.

연합뉴스

제1회 한라일보배 전도태권도 품새대회 개최를 축하합니다

DESIGN SOLUTION

광고기획 / 행사기획

현수막 · 실사출력 · 배너 · LED채널간판
옥외광고물 · 간판 · 각종사인물제작시공
인테리어 · 리모델링
전시대 · 행사부스 · 집기 제작 · CI · BI · 패키지

디자인솔루션
아이엔지기획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도길 1(이호이동 782)
T. 064.724-7177 F. 064.724-7178
E-mail. design6973@hanmail.net